

臘藥, 『언해납약증치방』, 그리고 허준

서울대학교 신동원

Napyak, 『Un hae nap yak zung chi bang』, and Hur jun.

Shin Dong-won

As a result of examination and analyzing variety of bibliographies, 『Un hae nap yak zung chi bang』 that has been known as anonymous work, is thought to be the work of Hur jun.

1. 납월에 납약을 짓는 까닭

우황청심원이란 약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아이가 놀라거나 어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반 알 또는 한 알을 물에 풀어 먹인다. 많은 경우 놀랄만한 효과를 경험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어난다. 이런 신기한 효과 때문에 오늘날 스트레스 심한 회사원들이 이 우황청심원을 늘 지니고 다니며 힘들 때마다 한 알씩 먹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 효과의 범위가 더 부풀려져 정력에 좋다고 믿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이다. 우리는 여기서 약의 약리학적 기능과 함께 주술적 기능을 같이 볼 수 있다.

우황청심원은 대표적인 가정상비약이었다. 그것을 동지 지난 후 세 번째 미일(未日)¹⁾인 납일(臘日)에 짓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납약(臘藥)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다. 납일에는 나라에서는 종묘에 제사를 지냈고 민간에서도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날 중국과 조선에서는 여러 신하에게 약과 향을 내려 주는 풍습이 있었다.²⁾ 납

1) 중국에서는 동지후 세 번째 술일(戌日)을 납일로 삼았고, 신라에서는 세 번째 인일(寅日)을 납일로 삼는 등 시대마다 지역마다 납일을 잡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일은 벽사(辟邪)와도 관계가 깊어서 『후한서』에서는 이날 하루 전날에 대대적인 귀신 쫓기 행사인 나례(儺禮)를 베풀었다고 한다.³⁾ 또 납일에 내린 눈을 곱게 받아 만든 물을 납설수(臘雪水)라 했는데, 이는 열성 전염병인 “온역(瘟疫)을 쫓는 특효약”⁴⁾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 후기에 편집된 김매수(1776-1840년)의 『열양세시기』(1819년)에서는 조선조의 납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의원과 각 영문(營門)에서는 이날 각종의 환약을 만들어 공사가(公私家)와 경향의 각 지에 나누어준다. 그중에서도 청심환(淸心丸)과 소합환(蘇合丸)이 가장 특효가 있다.⁵⁾

비슷한 내용이 이 책보다 30년 정도 늦게 나온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도 실려 있다. 여기서는 내의원, 각 관청과 함께 노인 문관들의 모임인 기로소(耆老所)에서도 이 약을 지어 나누어준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⁶⁾

우리는 이상의 사실로부터 납약을 통한 군신 관계, 상하 관계의 유대 관계를 볼 수 있다. 사향, 우황, 용뇌, 산삼, 녹용 등 납약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반 재료와 달리 비싼 약재가 많으며, 그 중의 상당수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내의원 등 몇몇 관청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내의원에서는 납약에 들어갈 재료를 각 지방으로부터 공물로 받는 한편, 중국으로 가는 연경사를 외국약재를 수입했다. 이렇게 모든 재료는 내의원과 다른 몇몇 관청에 나누어져 그곳의 의원들이 이를 제조한다. 이렇게 제조한 것을 왕은 대신들에게 나누어주고, 관청의 책임자는 하급 관리들에게 몇 알씩 나누어주는 식으로 납약이 보급되었다.

납약을 만드는 곳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확대되었다. 1493년(성종 29년)의 한 기록은 궁내 내의원에서만 담당하던 납약 제조를 육조(六曹) 등 여러 기관에까지 확대할 것에 대한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육조에서는 어전세(漁箭稅)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납약(臘藥)을 지어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 의정부·종친부(宗親府)·충훈부(忠勳府)에서 이를 본떠 청하는 자가 어지러이 많아지면 막기 어려울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또 승정원(承

2) 蔣廷錫 等撰, 『古今圖書集成』 권94, 「臘日部 彙考」.

3) 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백과사전』5, 「臘日」, 1993, 552쪽

4) 허준, 『신찬벽은방』, 한국의약대계 38, 여강출판사, 1994, 135쪽.

5) 김매수, 『열양세시기』, 「12월」, 한국명저대전집(이석호·이학일 역), 대양서적, 1972, 150쪽.

6) 홍석모, 『동국세시기』, 「12월」, 위의 책, 112쪽.

政院)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조위(曹偉)는 의논하기를, “약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육조에서 약을 짓는 것은 단지 육조의 당상(堂上)·낭청(郎廳)의 병만을 치료할 뿐만이 아닙니다. 지은 것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또한 많은 것입니다. 육조의 납약 값은 삼베[麻布] 15필일 뿐인데 당약(唐藥) 값은 비싸 무역하기 어려우니, 아린 대로 어전을 적당히 주어서 그 비용에 보태게 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7)

이 기록을 보면, 내의원에서만 관장하던 납약 제조가 육조에까지 확대되었고, 또 종친부와 충훈부 등에서도 납약을 제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19세기의 『열양세시기』에서는 “각 관청과 영문(營門)에서도 납약을 만든다”고 했으며, 『동국세시기』에서도 “각 관청에서도 많이 만들어 나누어주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어서 납약의 제조와 보급 범위가 조선 초보다 훨씬 넓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관리와 부유층을 넘어서 일반 민가에까지 이것이 보급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우황청심원 등을 일반 백성들이 집안에 두고 쓰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 『언해납약증치방』은 허준의 저작인가

각종 납약을 그것이 잘 듣는 병증을 연결해 기술한 책인 『납약언해증치방』(1권)은 편찬자 미상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존하는 책의 그 어느 곳에서도 책의 저자를 알려주는 부분이 없을뿐더러 허준과 관련된 다른 기록에서도 이 책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존하는 책의 언해 표기법이 영조 무렵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영조 때의 저작으로 추정되었다.⁸⁾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입수된 『태의원선생안』(고종 초기 저술된 것으로 추정됨)의 ‘허준’ 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허준: 본관 양천. 자는 청원. 정유년 생. 영의정에 추증됨. 양주(楊洲)에 묻힘?. 승록호성공신 양평군. 호는 구암. 『동의보감』, 『두창집』, 『구급방』, 『태산집』, 『벽온방』, 『납약증치방』을 편찬함.⁹⁾

7) 『성종실록』, 1493.5.18일자.

8)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앞의 책, 122쪽. 이후 다른 학자들도 모두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9) “陽川 許浚 淸源·丁酉 贈領議政 楊洲 崇祿扈 聖功臣陽平君 號龜巖 撰東醫寶鑑·痘瘡集·救急方·胎產集·辟瘟方·臘藥證治方”(『태의원선생안』, 『서벽외사(栖碧外史)해외수집본』 78, 아세아문화사, 1997, 457쪽).

위의 『태의원선생안』의 정보는 한 군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옳은 것이다. 한 군데 틀린 곳이란, 허준의 출생년이 정유년(1537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밝혀진 확실한 기록에 따르면 허준은 기해년(1539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년은 틀린 기록이다. 그러나 이는 족보를 비롯한 다른 기록들이 모두 1546년 또는 1547년으로 표기된 것과 견줄 때에는 허준의 실제 출생연도에 훨씬 근접해 있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보는 모두 옳다. 특히 책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다. 여기서 『두창집』은 『언해두창집요』를, 『구급방』은 『언해구급방』을, 『벽온방』은 『신찬벽온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두 『동의보감』과 함께 허준이 편찬한 책들이다. 따라서 나는 『납약증치방』이 허준의 저작이 아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책과 달리 『언해납약증치방』에는 편찬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태의원선생안』 이외에 다른 문헌에서 이 책이 허준의 저작이라고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정’은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납약증치방언해』에 실린 37종의 납약이 모두 『동의보감』에 보인다는 점, 또 납약이 적합한 병증을 설명한 내용의 90퍼센트 이상의 『동의보감』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 언해의 양식이 허준의 다른 언해본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단 이 책을 허준의 저작으로 간주한다.¹⁰⁾ 아울러 이 책의 저술이 허준의 다른 언해본이 나오던 시기인 1600년대 초반에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한다.

3. 『언해납약증치방』의 내용과 성격

서문 또는 발문이 없기 때문에 『언해납약증치방』을 쓴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책의 성격을 보아 이 책이 누구를 위해 씌어졌는지는 제법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납약을 어떨 때 쓰고, 납약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황청심환을 예로 들면, 이 약은 중풍 때 말을 못하거나 발열이 심해 정신이 아득할 때 사용하라고 하며, 음식 금기로는 붕어, 더운 국수, 복숭아, 오이, 참새, 참조개, 참새, 마늘 따위를 조심하라고 말한다.¹¹⁾ 반면에 납약을 어떻게 만들라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¹²⁾

10) 『언해납약증치방』의 본문 내용을 『동의보감』 등 허준의 다른 저작과 비교하고, 『언해납약증치방』의 언해 투를 허준의 다른 언해본과 꼼꼼히 비교하는 작업이 추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1) 허준, 『언해납약증치방』, 한국의약대계41, 1994, 306쪽.

12) 납약이 잘 듣는 병증과 약을 먹을 때의 음식 금기만을 말했기 때문에 약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동의보감』에 실린 우황청심환 제법을 보면, 우황, 인삼, 주사(水飛한 것), 사향, 용뇌, 영양의 뽕, 도라지, 은행씨 등 28가지 약재를 가루 내어 대추를 고아졸인 물에 섞은 데 넣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 책은 납약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납약을 써야 하는 환자를 위해서 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아마도 이 책의 출간은 납약의 보급 정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납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병증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납약을 쓰거나 금기를 지키지 않고 납약을 먹는 사례가 많아졌을 것이며 그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책이 편찬된 것이다.

『언해납약증치방』에는 모두 37종의 납약(가정상비약)이 실려 있다. 여기에 뽑힌 37종은 모두 명약 중의 명약이다. 비싼 재료를 아끼지 않고 다 들여 만든 약이다. 이 약은 모두 응급상황에 쓴다. 이를테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놀라서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심하게 열이 나거나, 갑자기 사지를 못쓰게 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갑자기 발작을 한다거나, 목의 통증이 심하거나, 설사가 멎지 않거나, 심하게 구토하면서 피똥을 싸거나, 가슴이 답답해 딱 막힌 듯하거나, 배가 땡땡해져 불편하거나, 대변이 나오지 않거나, 학질에 벌벌 떨거나, 귀신이 씌운 듯하거나, 아이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고통스럽거나, 아이를 쉽게 낳게 하거나, 아이가 경기를 한다거나, 마마 때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부가 얼어 터져 잘 낫지 않거나 하는 것이 응급 상황이다.

우황청심원, 포룡환, 우황포룡환등 37종의 납약¹³⁾은 각각의 병증에 대응한다. 이를테면, 중풍에는 우황청심원, 어지럼증에는 목향보명단, 어지럼증에는 가감박하전원, 목이 막혔을 때에는 해독옹황산, 가슴앓이에는 구통원, 대변이 통하지 않을 때는 설보단, 학질에는 귀곡단, 태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안태환, 아이 경기가 심할 때는 안신환 등 하는 식이다.

이 가운데에서 좀더 평판이 좋은 것이 있다. 이른바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身元), 소합원(蘇合元) 등 세가지가 그것이다. 청심원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에 안신원은 열을 내리는 데 소합원은 학질을 고치는 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¹⁴⁾ 이 중에서도 한 가지를 고르라면, 단연 청심환이다. 청심환 처방은 중국에서 유래했지만, 조선의 청심환은 좋은 재료를 써서 잘 지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

반죽한 다음 알약으로 만들고 곁에 금박을 입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약의 핵심은 소의 담낭에 생긴 담석인 우황과 사향노루의 배에서 취한 사향이다.

13) 37종의 납약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우황청심원·구미청심원·소합원·지보단·목향보명단·용뇌안신환·우황양격환·가감박하전원·용뇌고·해독옹황원·사청환·수자목향고·감응원·신보원·구통원·만명원·온백원·설보단·비급원·착호단·호합인진환·자금단·옥추단·귀곡단·승금단·비환단·안태환·보안환·최생단·소아청심원·희두토홍원·전씨안신환·지성보명단·포룡환·우황포룡환·납향고·신성벽온단 (허준, 『언해납약증치방』, '목록', 한국의약대계41, 1994, 297-304)

14) 홍석모, 『동국세시기』, 앞의 책, 113쪽.

다. 김매순의 『열양세시기』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 북경 사람들은 청심환이 다 죽어 가는 병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신단(神丹)이라 하여, 우리 사신이 북경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공·귀인들이 모여들어 구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왕왕 들볶이는 것이 귀찮아 약방문을 전해 주어도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 약밥의 경우와 같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북경 안에는 우황이 없어서 타황(駝黃, 낙타쓸개)을 대용하므로, 비록 약방문대로 만들었으나 복용해 보면 영묘한 효력이 없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¹⁵⁾

납약 만을 골라서 병증과 금기를 연결한 책으로는 『언해납약증치방』이 유일하다. 이는 이 책이 조선중기 이후 납약 사용에 매우 중요한 몫을 했음을 뜻한다. 이 책은 허준의 『언해구급방』과 짝을 이룬다. 『언해구급방』이 구급 병증을 먼저 내세우고, 약 처방과 여러 치료법을 제시했다면, 『언해납약증치방』은 구급 상비약을 먼저 내세우고, 그 약이 적용되는 병증을 제시했다. 그래서 접근하는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물론 차이점도 크다. 『언해구급방』에서는 좀더 쉽고, 값싼 치료법을 우선했다면, 『언해납약증치방』은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납약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해구급방』이 일반 인민들까지도 겨냥했다면, 『언해납약증치방』은 납약을 소지하고 있는 고관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자잘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납약에 관한 내용까지를 정리함으로써 허준은 『동의보감』이라는 종합적인 의학에서부터 전염병학(성홍열, 발진티푸스, 두창), 태산의학, 구급의학, 진단학 등 기초 의학을 망라한 저술을 낸 셈이 되었다.

15) 김매순, 『열양세시기』, 앞의 책, 150쪽.